

##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모형 탐색

오정아\* · 오해섭\*\*

### 초 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요인을 밝혀내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만 18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이 무엇인지 예측해 내고자 설문조사를 하였고, 최종 36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부모의 과잉기대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이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 자아성취, 자아존중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학생은 자아존중감, 부모의 과잉기대, 부모애착이 진로결정 수준을 잘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으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잘 예측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실천적 접근을 위한 제언을 담았다. 한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인이 제외되었고, 가족의 경제수준 및 부모학력, 형제관련 변인, 사회참여활동 관련 변인들을 적용하지 못했다. 또한 지역사회 지지변인 외에 검정고시 학원이나 상담지원센터 등 담당자들과 관계와 해당 기관 이용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진로결정 수준,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과잉기대, 자아성취

\* 충북대학교, [musicka@hanmail.net](mailto:musicka@hanmail.net)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신저자, [ohs@nypi.re.kr](mailto:ohs@nypi.re.kr)

## I. 서론

청소년기 진로개발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의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장하여 진로 발달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화중지병(畫中之餅)에 불과하다.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교육 및 진로개발의 기회와 사회성 발달 등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Natriello, Pallas & McDill, 1986). 이로 인해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울과 강박, 불안, 적대감과 편집증(손해경, 이해정, 김미영, 2014) 등 심리적 문제와 좌절감 그리고 낮은 진로정체성(홍혜영, 안혜선, 2009) 등으로 진로 미결정의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로발달 이론가들(Super, 1955; Griets, 1971; Gottfredson, 1981; Osipow & Fitzgerald, 1996)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진로는 인간의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소년기 진로탐색을 기본으로 한 진로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진로와 관련된 자원이 낮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는 성취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향 후 양질의 노동력 상실과 함께 사회적 비용과 보호 및 교정비용의 증가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여기에 공적자원의 활용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것은 사회적 안녕과 직결된다. 이는 우리에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부 질적분석을 수행한 연구들(박병금, 노필순, 2017;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조아미, 이진숙, 2014)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의 경험을 다루면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과 연계하여 이들의 진로를 살펴보았을 뿐 이들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실천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박지현과 황미영(2017)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검증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이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제외된 채 제한된 변인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보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진로결정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다(Blustein, Devenis & Kidney, 1989)는 의견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진로탐색 수준이 더 높다(이현주, 2008)거나 혹은 진로결정에 있어 성별차이가 없다(이경순, 2013)는 등 진로와 관련되어 학자들마다 일관되지 않은 주장들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 이들의 욕구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따른 성별차이를 살펴 봐야할 당위성을 부여한다.

미래의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지도는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직업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한 적성평가, 직업 의사결정 등을 토대로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 가족 혹은 환경적 변인의 특정한 요인으로 청소년들 진로발달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 보다 조작되지 않은 변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위한 중요 요인을 밝혀내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개인과 가족 그리고 환경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마이닝 분석방법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판별분석이나 회귀분석 등과 같은 모수적(parametric)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상치(outlier)를 검색하거나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고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교호효과를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최종후 외, 2002).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를 가장 많이 예측하는 변인부터 순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연구자가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변인부터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인들을 발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

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접근의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이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로 과거에는 학업중퇴, 학교 자퇴, 학업중단, 중도탈락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다(변숙영, 이수경, 2011). 이러한 용어들은 정규교육과정을 이탈한 청소년들에 대해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부정적 낙인의 의미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정규교육과정을 이탈한 청소년들도 검정고시를 비롯하여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등 자기실현의 욕구와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금명자, 2008). 이에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현우, 양명숙, 2017; 김영희, 최보영, 2015; 금명자, 2008). 본 연구에서도 정규교육과정을 이탈하여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진로결정 수준의 개념

진로결정(career decision)은 청소년기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이혜성과 홍혜경(1998)은 진로 미결정에서 진로결정으로 연속선

상에 있는 개념으로 진로결정자와 미결정자를 모두 포함하여 진로결정으로 규정하였고,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직업과 관련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확신성을 진로결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기학(1997)은 개인의 진로가 정해진 정도를 진로 결정성이라고 하였으며, 고향자(1992)는 “진학, 취업 등 미래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진로결정 수준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보람과 김봉환(2015)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정신적 측면에서 진로결정 수준, 행동적 측면에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진로결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정도로 보아 진로를 결정하였거나 미결정한 상태와 진로준비행동을 모두 포함하여 진로결정으로 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3. 진로결정 예측 요인 고찰

#### 1) 개인관련 요인

청소년의 진로결정의 개인요인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오정아, 정운태, 2015)과 자기효능감(조혜정, 홍다영, 2017; 이선희, 2014)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선경, 2017; 한미경, 2017; 성동제, 2015), 자아성취(김영화, 김계현, 2011) 그리고 자립준비(정경미, 2009)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의 자아개념과 진로결정을 살펴본 연구들(배상훈, 최은옥, 장창성, 2014; 권미정, 2013; 유수복, 2012; 김희수, 김옥희, 2007)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등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 진로결정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기개념명확성은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이현우, 양명숙, 2017; Campbell et al., 1996). 자기개념은 자기평가와 역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다(이현우, 양명숙, 2017).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 기초능력을 발달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윤철경 등(2013)이 범주화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근거로 이들의 진로결정을 살펴본 오은경(2014)은 학습지향형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은 반면, 학교를 떠난 이후 특정 목표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NEET형에 속한 청소년의 진로결정

이 가장 낮다는 주장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장기간 학교를 일탈한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경험이 낮아 학업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최동선, 이상중, 2009). 한편, 개인의 심리행동문제와 진로결정의 중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서조절 능력(어윤경, 2016)이나 우울 및 불안(오정아 외, 2014; 문선아, 2000), 무기력증(이지, 2012) 등이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 2) 부모관련 요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 부모와 관계를 비롯하여 부모의 진로정보의 수준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서 결코 소외될 수 없는 요인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정에서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족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장(場)이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인식 수준이 다르고(정혜정, 최인실, 2004),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들(Betz, 1989; Farmer, 1985; Rooney, 1983)의 주장은 부모요인의 중요성에 확신을 더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도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부모-자녀 간 친밀감이 높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이며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정보 습득과 진로준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이현우, 양명숙, 2017).

특히 교사와 또래관계 혹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일반 청소년들에 반해(오정아, 정윤태, 2015),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 혼란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상당수가 부모의 결혼 상태와 경제수준 등과 같은 가족요인에 따라 진로결정에 차이가 있다는 윤철경 등(2013)과 가정의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깊이 관계가 있다는 Bloom(2010)의 주장은 가정환경이 이들의 학업지속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것을 잘 보여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 관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을 지원해 주는 원천(Betz, 1989; Farmer,

1985; Rooney, 1983)이 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3) 외부환경 요인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가족요인의 중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불편함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있다(Zimet & Jacob, 2001)는 주장을 하면서 이들의 문제가 비단 가정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 혹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는 낙인(stigma)을 경험하게 된다(오정아 외, 2014). 일각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이 낮은 학업성취 혹은 학교 부적응에서 오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장원섭 외, 1999), 정규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지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chill et al., 1985; Stern & Nakata, 1989). 그러나 학교의 보호와 통제를 벗어난 상당수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로 인해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야간근무를 요구당하거나 하루 12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등 노동현장의 부당한 처우로 사회와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선희, 2014)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정규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했다는 부정적 시선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현장에서 부적응 문제 유발의 원인이 된다(오정아 외, 2014). 이러한 현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진로결정수준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직업에 대한 기초능력을 떨어뜨려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진학형이나 취업형 청소년 모두 학교에 복귀를 하지 않은 이상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기관을 찾기 어려워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혼란을 경험한다는 이경상과 조혜영(2005)의 주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아쉬움

이 있다. 더욱이 김남순과 배종훈(2000)은 진로결정에 대해 단순히 개인이 진로를 결정 했는가 혹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와 원인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결정은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대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도 제한적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과 실천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이러한 선행연구(이현우, 양명숙, 2017; 오정아, 정운태, 2015; 오정아 외, 2014; 김남순, 배종훈, 2000; Betz, 1989; Farmer, 1985; Rooney, 1983)을 근거로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립준비, 자아성취감을 개인요인으로 보았고, 부모애착과 감독, 부모자녀갈등을 가족요인, 또래지지와 지역사회지지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천안과 대전 그리고 경기도 및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학교 밖 청소년을 소개받아 설문하는 눈덩이표집방법을 활용하였고, 일부는 검정고시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있는 담당자들을 통해 조사목적을 설명하였고 이들의 소개를 받아 만난 청소년들에게 또 다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이를 수락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의표집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시행되었고, 총 40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 36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참여자 중 남학생이 61.8% 여학생이 37.2%, 학업중단 시 학년으로는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 때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학생의 경우 3학년이 10.0%로 가장 많



있고, 고등학생은 1학년이 56.5%로 가장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 부모의 학력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전체 3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반적 배경

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성별	남학생	218	61.8	중단 시 학년	중학교	1학년	25	7.6
						2학년	31	9.4
						3학년	33	10.0
	여학생	135	37.2		고등학교	1학년	186	56.5
					2학년	47	14.3	
					3학년	7	2.1	
	계	363	100.0		계	327	100.0	
아버지 학력	고졸	185	59.9	어머니 학력	고졸	210	64.2	
	대졸	124	40.1		대졸	117	35.8	
	계	309	100.0		계	327	100.0	

표 2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중단 이후 삶

(다중응답: %)

구분	N	%
검정고시	262	36.0%
아르바이트	186	25.6%
취업	30	4.1%
직업훈련	22	3.0%
소년원	12	1.7%
보호관찰	54	7.4%
가출	64	8.8%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았다	65	8.9%
기타	32	4.4%
전체	727	100.0%

## 2. 연구도구

### 1) 진로결정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1980)에 의해서 개발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를 고향자(1992)가 우리 현실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certainty)과 미결정(indecision)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척도의 문항은 진로확신수준이 2문항, 진로미결정 수준이 16문항 이다. 문항 1, 2번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문항 3-18은 진로미결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도 3-18번 문항을 역으로 채점하고 그 평균을 산출하여, 평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개인요인

#### (1) 자아존중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SES: 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의 단일차원의 척도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긍정과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부정 문항은 역코딩하여 요인분석을 수행 한 후 문항의 공통성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신뢰도 분석을 거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CDMSES-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자아성취감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성취감을 살펴보기 위해 민 진(1986)이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자기 성취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로 능력발휘성, 능력개발성, 목적이상 실현성, 내부지향성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전문가 의견을 거쳐 최종 문항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간 공통성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였고,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 간 상관이 낮아 척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항을 제거한 총 12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립준비도

자립준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신혜령(2000)이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자립준비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결정, 계획, 개인위생, 용모와 의복관리, 친구관계 등과 같은 자기관리기술에 관한 14문항과 정보, 예산편성, 저축, 의료이용, 지역사회기관, 직업준비, 자기표현방법, 직업기술향상 등 자원관리기술에 관한 12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가족요인

### (1) 부모애착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정정숙(1994)이 번안한 것에서 부모애착 요인만을 선택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척도는 부모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분되지만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거친 후 세 요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 (2) 부모양육행동

부모양육행동은 허묘연(2004)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 합리적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성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부모감독과 과잉간섭, 부모애정, 부모학대가 나타났다. 부모애정과 부모학대는 각각 애착척도 및 부모-자녀갈등 척도와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분석에 사용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부모감독과 과잉기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 (3) 부모-자녀갈등

본 연구에서는 Robin과 Foster(1989)가 개발한 갈등 체크리스트(Issue Checklist)를 모델로 문경주(2004)가 사용한 20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자녀 간에 얼마나 자주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없었다’ 1점에서 ‘거의 매일 있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환경요인

## (1) 또래지지

또래지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미현(1996)의 사회적지지 척도 중 또래지지에 관한 하위문항을 백선희 외(2007)가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7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등의 문항으로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 (2) 지역사회 지지

사회적지지 척도는 Zimet, Dahlem, Zimet와 Farley(1988)가 개발한 MSPSS(Multi 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ventory이다. MSPSS척도는 인지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12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척도이며 가

족, 친구, 주변인들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가족요인은 부모애착과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상담사 그리고 친구들과 관련된 문항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사회 지지를 살펴보았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와 패턴, 규칙뿐만 아니라 숨겨진 지식과 예상하지 못한 패턴 및 새로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추출하여 모형화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예측하고자 한다(정용찬, 2013; 김신근, 1999). 이를 위해 SPSS 23.0 program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은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평균값으로 높고 낮음으로 범주화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classification)와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강현철 외, 2006).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node 로 이루어진 나무 모양으로 구성되며 자료를 잘 분리할 수 있는 분리 변수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마디를 더 이상 효율적인 분리가 되지 않을 때 까지 마디가 뻗어 나가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형성하는데, 이때 마지막 진행된 마디가 끝 마디가 되도록 정지규칙을 지정하고 형성된 의사결정나무에서 적절하지 않은 마디를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통해 최종적인 예측모형을 선택하게 된다(김동일 외, 2014).

이렇듯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나무구조의 모형으로 도식화 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분류 또는 예측의 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한 추론규칙(induction rule)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고 종속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변인 간 교호작용들을 모두 고려한다는 장

점이 있다(강현철 외, 2010; 이경은, 이주리, 2010). 더욱이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정규성(normality)과 등분산성(equalvariance) 등의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과 같은 특별한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결합하여 목표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태완, 2014; 강현철 외, 2010).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각 변인들이 자동적으로 상호 작용 되어 분석되어 종속변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자동적으로 산출해 주는 특성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분석방법이라고 판단된다(이대웅, 손주희, 2015).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군집분석 후 생성된 이산형 변수이므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chi^2$  적합성 검정에 근거한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Kass, 1980). CHAID 알고리즘은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을 분리기준으로 사용하여 분리와 정지가 진행되며 다지분리를 허용하는 장점이 있다(김동일 외, 2014). 또한 독립변인들의 분리(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05(level of significance  $\alpha=0.05$ )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Type I error( $\alpha$ )를 조절하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 기법을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위노드와 하위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위노드 10과 하위노드 3을 각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결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의사결정모형의 나무구조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모형의 적합성을 판별하였다. 의사결정모형에서 적합성을 판별하는 방법은 이익도표와 위험도표 그리고 데이터분할에 의한 타당성 평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익도표와 위험도표를 토대로 모형이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 4. 분석변수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3  
주요변수 구분 및 신뢰도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Cronbach's $\alpha$		
			남학생	여학생	
종속변수	진로결정	- 개인의 진로에 대한 결정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확신과 미결정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 평균값으로 활용: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의도가 높음을 의미	.91	.92	
예측변수	개인요인	자아존중감	-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과 가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89	.8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	.88	.90
		자아성취감	- 개인적 자아성취와 사회적 자아성취를 보는 문항	.90	.89
	자립준비	자기관리 기술	- 개인위생이나 용모 등과 관련된 상태	.85	.88
		자원관리 기술	-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보는 상태	.88	.89
	가족요인	부모애착	-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	.92	.93
		부모감독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87	.92
		부모과잉간섭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간섭 정도	.75	.80
		부모자녀갈등	- 부모-자녀 간 갈등의 정도	.84	.84
	환경요인	또래지지	-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지지 정도	.94	.84
지역사회 지지		- 이웃과 종교집단 혹은 지역 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내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정도	.94	.93	

## IV. 결 과

### 1.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 표 4와 같다.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의 진로결정은 전체의 41.2%가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립준비,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과잉간섭, 부모자녀갈등, 또래지지, 지역사회지지와 등 진로결정의 예측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애착, 자아성취, 과잉기대, 자원관리기술, 부모-자녀 갈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수준은 54.7%로 증가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애착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은 61.7%로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이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았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은 72.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아도 부모애착이 낮은 경우 진로결정은 35.3%로 감소하였고, 부모애착이 낮고 부모-자녀간 갈등이 높으면 진로결정은 14.3%로 감소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진로결정은 25.3%로 감소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성취가 낮았을 때 진로결정은 17.6%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자아성취가 낮고 자립준비를 위한 자원관리기술이 낮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은 11.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더라도 자아성취 경험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이 40.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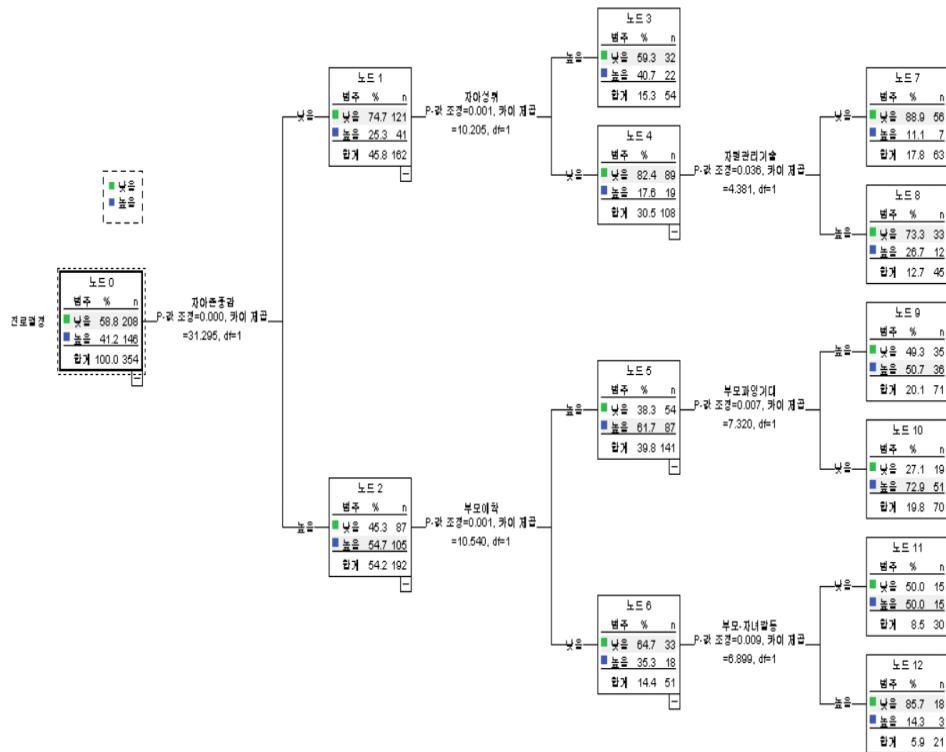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 모형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 모형의 최종결과와는 표 4의 이익도표로 확인한다. 가장 상단의 10번 마디는 가장 높은 기대빈도를 의미하며(70명, 19.8%),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은 집단을 말한다.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이 가장 높은 경우는 10번 마디로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애착이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은 조합의 진로결정이 전체 진로결정과 비교했을 때 1.76배(17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9번 마디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부모의 과잉기대가 높은 경우가 진로결정이 1.22배(122.9%)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11번 마디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와 애착이 낮으며 부모-자녀 간 갈등이 낮은 경우 진로결정이 1.21배(121.2%) 높고, 3번 마디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성취가 높은 경우 진로결정이 전체 41.2%에서 40.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7번 마디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성취가 낮으면

서 자립준비를 위한 자원관리 기술이 낮은 경우 전체 진로결정인 41.2%에서 11.1%로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험추정치와 교차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위험추정치는 의사결정 나무에 의해 잘못 분류되거나 예측될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추정치 값이 작을수록 모형구축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 교차타당성 평가는 데이터를 서로 겹치지 않는 k개의 집단으로 나눔으로 시작된다(최종후 외, 2000).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 모형에 대한 위험추정치는 .319 표본오차는 .025로 나타났고, 교차타당성은 .379, 표본오차 .026으로 위험추정치와 교차타당성 간 차이가 낮아 모형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에 대한 이득지수

node	node		이득(Gain)		반응	지수(Index)
	N	%	N	%		
10	70	19.8	51	34.9	72.9	176.7
9	71	20.1	36	24.7	50.7	122.9
11	30	8.5	15	10.3	50.0	121.2
3	54	15.3	22	15.1	40.7	98.8
8	45	12.7	12	8.2	26.7	64.7
12	21	5.9	3	2.1	14.3	34.6
7	63	17.8	7	4.8	11.1	26.9

## 2. 학교 밖 남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

학교 밖 남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2, 표 5와 같다.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결정은 전체의 39.0%에서 높게 나타났다. 예측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남자 청소년의 자아성취였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학교 밖 남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조합에 따라 기대빈도가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성취가 높아지면 진로결정수준은 약 53.2%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무런 자

로 없이 진로결정을 판단하는 node 0의 39.0% 보다 14.0% 향상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반면, 자아성취가 낮은 경우 진로결정은 24.3%로 감소하였고, 자아성취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진로결정은 15.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아성취가 낮아 진로결정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때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진로결정은 39.0%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학교 밖 남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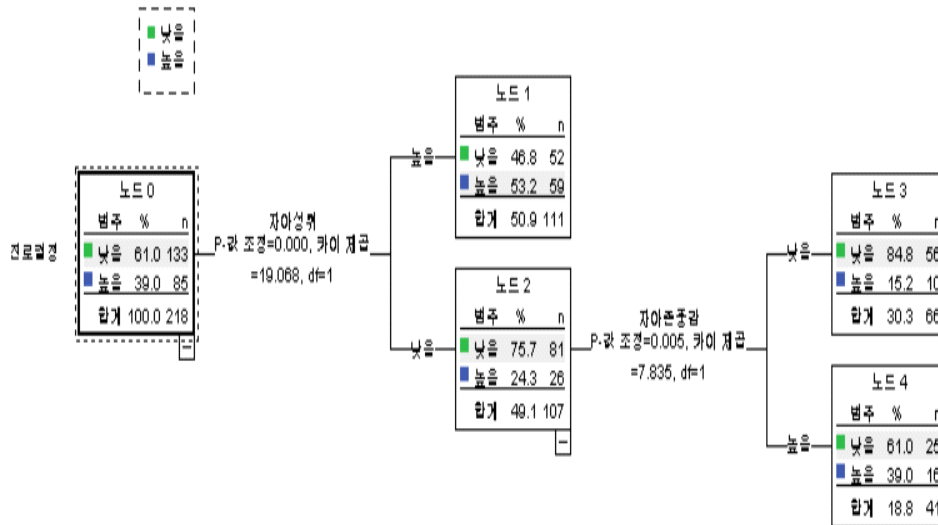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밖 남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 모형

학교 밖 남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 모형의 최종결과는 표 5의 이익도표로 확인한다. 가장 상단의 1번 마디는 가장 높은 기대빈도를 의미하며(111명, 50.9%), 자아성취가 높은 집단을 말한다. 즉, 학교 밖 남자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번 마디로 자아성취가 높은 조합의 진로결정이 전체 진로결정과 비교했을 때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번 마디는 자아성취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가 진로결정이 1.00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번 마디는 자아성취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을 때 전체 진로결정인 39.0%에서 15.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험추정치와 교차타당성 검토 결과, 학업중단 남학생의 진로결정 예측 모형의 위험추정치는 .358 표본오차는 .032로 나타났고, 교차타당성은 .422 표준오차 .033으로 위험추정치와 교차타당성 간 차이가 낮게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학교 밖 남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에 대한 이득지수

node	node		이득(Gain)		반응	지수(Index)
	N	%	N	%		
1	111	50.9	59	69.4	53.2	136.3
4	41	18.8	16	18.8	39.0	100.1
3	66	30.3	10	11.8	15.2	38.9

### 3.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그림 3, 표 6과 같다.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은 전체 44.4% 높게 나타났다. 예측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과잉기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부모애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은 59.7%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무런 자료 없이 진로결정을 판단하는 node 0의 44.4%보다 15.3% 향상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성취가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은 경우 진로결정은 73.2% 증가하였고, 자아성취가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으며 부모애착이 높으면 진로결정은 86.7%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진로결정은 27.0%로 감소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진로결정수준은 19.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때 자아존중감이 낮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수준이 63.6%로 증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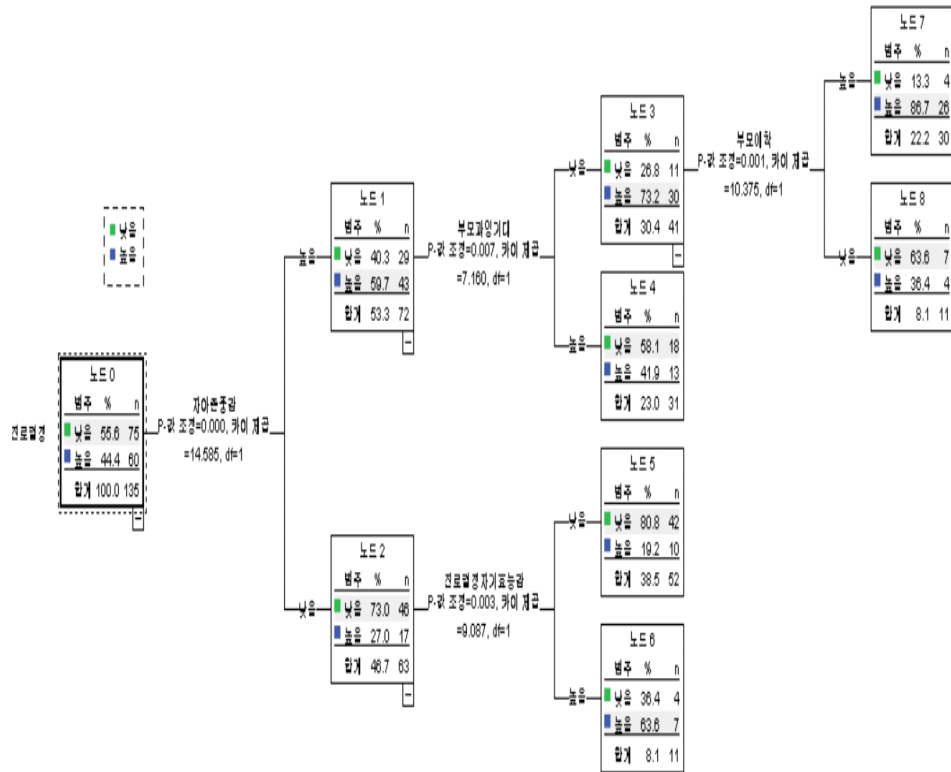


그림 3.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 모형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 모형의 최종결과는 표 6의 이익도표로 확인한다.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이 가장 높은 경우는 7번 마디로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으며 부모와 애착 수준이 높은 조합의 진로결정이 전체 진로결정과 비교했을 때 1.95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6번 마디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이 1.43배 높게 나타났고, 4번 마디는 자아존중감과 부모과잉기대가 높은 경우 진로결정이 전체 44.4%에서 41.9%로 감소하였다. 또한 8번 마디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와 애착이 낮은 경우 진로결정이 전체 44.4%에서 36.4%로 감소하였다.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험추정치와 교차타당성 검토 결과, 진로결정 예측 모형의 위험추정치는 259

표본오차는 .038로 나타났고, 교차타당성은 .296, 표준오차 .039로 위험추정치와 교차타당성 검토 간 차이가 낮게 나타나 모형의 일반화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에 대한 이득지수

node	node		이득(Gain)		반응	지수(Index)
	N	%	N	%		
7	30	22.2	26	43.3	86.7	195.0
6	11	8.1	7	11.7	63.6	143.2
4	31	23.0	13	21.7	41.9	94.4
8	11	8.1	4	6.7	36.4	81.8
5	52	38.5	10	16.7	19.2	43.3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예측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향상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접근의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데이터마이닝 분석방법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변인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애착과 부모의 낮은 과잉기대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이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은 경우 진로결정이 높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발달을 위한 준비와 진로개발을 더 많이 하여 진로결정이 높다는 김선아(2008)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자녀간 애착수준이 높고 과잉기대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기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오정아와 김영희(2015)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부모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자원이라는 오정아와 정윤태

(2015)의 주장을 지지한다. 아울러 부모지지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Farmer, 1985; Rooney, 1983)의 견해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입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현명하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부모는 진로발달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자,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과 함께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 다른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개인의 자아성취 그리고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낮은 과잉기대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학생들은 자아성취가 높고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높게 예측하지만, 여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의 과잉기대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높게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성취감 수준이 높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유원용, 유기선, 이양구, 2010; 김용규, 김덕진, 2007; 조연철, 최창석, 2001).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자청소년은 다양한 진로체험 관련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자아성취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부모와 긍정적 혹은 갈등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여봉, 이선이, 김현주, 2008), 부모의 과잉기대는 학교 밖 여자청소년과 관계에서 갈등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이러한 부정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자녀 간 관계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기 때문에(오정아, 정윤태, 2015; 김숙이, 2005; 최현영, 서영석, 2005; Lee & Hughey, 2001) 학교 밖 여자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자녀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Korman, 1969)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담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기존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 진로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로결정의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투입했을 때 자동적으로 상호작용 되어 종속변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산출하는 특성을 지닌 분석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현 시점에서 이들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주목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개인의 자아존중감 회복이 진로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조망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자아성취 경험이 남학생의 진로결정을 높게 예측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여학생의 진로결정 예측요인으로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었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남학생은 성취경험을 높여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학생은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앞서 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많은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해당 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재분석을 통해 이미 선행된 바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정 및 보완한다면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이 수행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전담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 검정고시 학원이나 상담지원센터 등과 같은 곳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 범죄, 고용불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에 처해있다. 이는 기관을 찾아오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경찰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환경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인이 제외되었고, 가족의 경제수준 및 부모학력, 형제관련 변인, 사회참여활동 관련 변인들이 적용되지 못한 점, 지역사회 지지변인 외에 검정고시 학원이나 상담지원센터 등 담당자들과 관계와 해당 기관 이용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못한 점,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 참고문헌

- 강현철, 한상태, 최종후, 이성건, 김은석, 엄익현, 김미경 (2010). **(고객관계관리 (CRM)를 위한) 고객관계관리(CRM)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방법론**. 서울: 자유아카데미.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4(1), 299-317.
- 김경애 (2016).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28.
- 김남순, 배종훈 (2000). 진로결정검사(CDP)의 표준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4(3), 83-98.
- 김동일, 박희찬, 홍서두, 이혜린, 고해정 (2014). 직업적 장애선별과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 프로토콜 탐색. **특수아동교육연구**, 16(1), 1-23.
- 김보람, 김봉환 (2015). 진로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8(2), 1-22.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치료**, 9(1), 311-333.
- 김선경 (2017). **청소년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활동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아 (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곤 (1999).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데이터베이스저널**, 6(1), 89-101.
- 김숙이 (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애착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화, 김계현 (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169-182.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 김용규, 김덕진 (2007). 조국순례대행진 참가학생의 참여동기와 자아성취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6(3), 281-290.
- 김태완 (2014).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재범 관련요인 연구: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5, 129-151.
- 김충기, 천귀순 (2003).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성격특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6(2), 25-44.
- 김희수, 김옥희 (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 문경주 (2004). **청소년기 지울성 욕구와 부모 허용간 불일치가 우울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선아(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승태 (2003).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 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 진 (1986). **조직 의관료제적 특징과 자기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금, 노필순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47-78.
- 박지현, 황미영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1-24.
- 배상훈, 최은옥, 장창성 (2014). 중학교 단계 진로지도가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2(2), 119-143.
- 백선희, 조은수, 우연경, 정윤경, 이선영, 김성일 (2007). 보상제시 여부에 따른 평가자 유형 및 또래지지 수준이 창의적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19(1), 59-76.
- 변숙영, 이수경 (2011). 학업중단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실태및지원방안. **교육문화연구**, 17(2), 283-302.
- 성동제 (2015).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해경, 이혜정, 김미영 (2014).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4), 314-321.
- 송현옥, 박아청 (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 정체감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7(2), 109-129.
- 신창주 (2010). **중학생의 마라톤 참여가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령 (2000).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보육사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효정, 최현주 (2013).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관련 변인 간의 영향. *발달지원연구*, 2(2), 95-114.
- 어윤경 (2016). 청소년의 역기능적 정서 및 비행행동 변화와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조망 효과 연구. *교육문제연구*, 58, 257-279.
- 오은경 (2014). 학교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지지,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 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12(2), 65-80.
-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과정. *청소년학연구*, 21(5), 141-168.
- 오정아, 김영희 (2015). 부모의 갈등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6), 235-261.
- 오정아, 정윤태 (2015).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9), 49-77.
- 유수복 (2012). 초등학생의 맥락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권리*, 16(1), 195-214.
- 유원용, 유기선, 이양구 (2010). 초등학생의 체육특기적성교육활동 참여와 신체운동기능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6(2), 141-150.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조혜영 (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경순 (2013). **역기능 가족구조와 심리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은, 이주리 (2010). 기초생활보장 가정 아동의 인지발달 예측모형. **인간발달연구**, 17(1), 227-242.
- 이경희, 윤미현 (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 175-199.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 중감 진로태도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 회자: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대웅, 손주희 (2015). 청소년의 학교폭력 위험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데이터마닝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15, 27-54.
- 이선희 (2014). 노동경험이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 경험: 근거이론에 의한 접근.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57-181.
- 이여봉, 이선이, 김현주 (2008). 청소년자녀와 부모 간 긍정적·갈등적 상호작용-국가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자녀와 부모 간 긍정적·갈등적 상호작용. **가족 과 문화**, 20(2), 127-160.
- 이은지(2012). **여대생이 지각한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성,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43-166.
- 이현우, 양명숙 (2017).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기개념명확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91-116.
- 이현주 (2008). 대학생의 성별 및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진로개방성, 진로탐색활동, 진로정체감의 차이. **교육학연구**, 46(1), 79-99
- 장원섭, 김형만, 옥준필 (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경미 (2009). 시설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 및 자립준비도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1), 33-50.
- 정미애 (2015). **부모의 문제유주가 여자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정숙 (1994). **자아 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정, 최인실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773-791.
- 조아미, 이진숙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145-170.
- 조연철, 최창선 (2001).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자아효능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15, 213-221.
- 조혜정, 홍다영 (2017).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35-6.
- 최동선, 이상준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종후, 최봉호, 양우성, 김유진 (2000). 성장곡선모형에 의한 인구예측시스템. **한국인구학**, 23(1), 197-215.
- 최종후, 한상태, 강현철, 김은석, 김미경, 이성건 (2002). **데이터마이닝 예측 및 활용**. 서울: 한나래.
- 최현영, 서영석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71-684.
- 최형규 (2000). **中學生의 自己尊重感 및 人性特性이 進路成熟度에 미치는 影響**.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경 (2017). **전북 소재 농업계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잠재적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홍혜영, 안혜선 (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7), 149-17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loom, D. (2010). Programs and Policies to Assist High School Dropout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Journal of Future of Children*, 20(1), 89-109.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rites, J. O. (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 Farmer, H. (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3), 363-390.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Korman, A. K. (1969). Self-esteem as a moderator in vocational choice: Replications and exten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3(3), 188-192.
- Lee, H.,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4), 279-293.
- Natriellom, G., Pallas, A. M., & McDill, E. L. (1986). Taking stock: Renewing our

- research agenda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ropping out. *Teachers College Record*, 87(3), 430-440.
- Osipow, S. H., & Fitzgerald, L. F. (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71-76.
- Robin, A. L., & Foster, S. L. (1989). *Negotiating parent-adolescent conflict: A behavioral-family systems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oney, G. (1983).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life roles of worker, student, and homemaker for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3), 324-342.
- Schill, W. J., McCartin, R., & Meyer, K. (1985). Youth employment: Its relationships to academic and family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155-163.
- Stern, D., & Nakata, Y. (1989).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 paid jobs, and employment experience after graduation*. In D. Stern, & D. Eichorn (Eds.), *Adolescence and work: influences of social structure, labour markets, and cultur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 Zimet, D. M., & Jacob, T. (2001).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adjustment: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4), 319-335.
- Zimet, G. D., Dahlem,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ABSTRACTS

### The predictors of factors related to career decision making amongst adolescents who drop out of school, using decision-making tree analysis

Oh, Jung A\* · Oh, Haesub\*\*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in order to elucidate the factors related to the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adolescents who drop out of full time education. We also sought to provide evidence-based data that can aid their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under 18 adolescent drop outs, 363 surveys was selected to be used to predict the key variables affecting their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As a result, the key variables that can predict such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were found; namely,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and excessive parental expectations. First, for both groups, high self-esteem, strong parental attachment and low parental expectations led to successful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es. Second, for male students, self-esteem and self-achievement were shown to have a stronger influence. Third, for female students, all three key variables,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excessive parental expectations, were shown to affect their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Consequentially, high self-esteem, strong parental attachment and low parental expectations were the conditions most conducive to effectiv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hese findings on how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out of school youth were affected by gender is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we advanced a number of proposals on practical approaches to aid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out of school youth.

Key Words: out of school student, career decision level,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excessive parental expectations, self-achievement

투고일: 2017. 10. 30, 심사일: 2018. 1. 29, 심사완료일: 2018. 2. 13

---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